

민족의 통일수련을 풀어주려고

지금으로부터 일곱해 전인 주재 101(2012)년 3월 초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었다. 분별과 대결의 력사를 안고 살벌한 긴장이 흐르는 판문점을 찾으신 경에는 원수님께서는 그곳에 정히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를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있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회고하시고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하신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시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었다.
그이의 판문점시찰소식에서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받아안게 되었다.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은 김일성주석님의 친필비를 찾으신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모습에서 통일된 조국을 보았다, 분별된 조국의 통일을 주도하실분은 오로지 김정은최고사령관님밖에 없다.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대행운이라고 격정을 터치었다.
그뿐 아니라 해외의 언론들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시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일성주석님과 똑같이 먼저 주석님의 친필비를 찾고 그 의미를 동행한 일군들에게 설명강조한 점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판문점에 나가신것은 조국통일에 대한 중대결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이라고 평하였다.
그때로부터 6년이 되는 지난해에 판문점은 민족적 화해와 평화변영의 새시대, 새 력사의 출발을 알리는 경이적인 사변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년초부터 북남관계대 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주동적이며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 위에 마침내 민족적 화해와 평화변영의 봄이 도래하게 되었다.
뜻깊은 그날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된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쫓아온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였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열정과 탁월한 정치실력, 넓은 포용력과 철석의 통일외치는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평양에서의 격동적인 사변을 려이어나와와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었다.
오늘 조선반도에 펼쳐진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변영의 새시대는 철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친솔위인의 불멸의 업적은 평화와 통일한 가치로도 빛나고 있다.
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다. 공업용재로나 원료,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데 필요한 것을 해결할수 있는 원천이다. 그뿐 아니라 콘크리트로부터 산과 토지를 보호하며 좋은 생태환경도 마련한다.
열렬한 조국애와 향토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였으며 조국강산에 푸른 숲 설레이도록 하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돌아보면 해방후 나라의 산림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일제는 조선의 산림자원을 다 차지대로 약탈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였고 조선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자연재해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었다.
1902년부터 1945년 7월까지의 기간에 약탈하여간 용재는 2억 1928만 2347m³에 달하였다. 화목이나 숯생산용으로 람벌한것까지 합하면 채벌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해방후 새 조선건설의 초행길을 헤쳐나가기위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재35(1946)년 3월 어느날 평양의 모란봉에 오르시었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상처입은 조국산림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심중은 무거우시었다.
그날 몸소 나무를 심으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모란봉에 나무도 많이 심고 꽃들도 많이 심어야 하겠다고, 모란봉을 공원으로 잘 꾸러 평양시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해방된 오늘에는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이 모두 인민의것으로 되었고 하시며 수림화, 원림화 의 설계도를 펼치신 그이께서는 이듬해 봄에 문수봉을 찾으시어

이 땅의 푸른 숲을 그리시며
나무를 심으시며 산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보호관리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었다.
아버이 수령님께서는 평안남도 양덕군 구지포를 찾으시어서는 산을 잘 리용하면 산간지대에서 도 벌방 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고 산림자원리용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가릴치않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산림조성과 관련한 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시고 산림조성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시였으며 한명의 전투원이 그처럼 귀중하던 때에 많은 군인들을 전선에서 소환하여 산림보호원으로 파견하도록 하시는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 없는 특별조치도 취하시었다.
전화의 나날에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그리시며 몸소 화분에 수삼나무를 심어 가꾸시고 한그루의 단풍나무아래에서 손수 씨앗을 모아 널리 퍼지도록 하시 위대한 수령님의 열렬한 조국애는 오늘도 이 땅에 푸르러 설레이는 수삼나무, 단풍나무숲과 더불어 길이 전하여지고있다.
창성이깎나무, 전나무, 종비나무, 잣나무, 기름밤나무, 평양단풍나무 등은 나라에 퍼져있는 나무들에 푸른 숲을 위하여 기틀을 이룬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일제의 가혹한 산림자원약탈책동과 전쟁의 후과로 혹심하게 황폐화되었던 조국강산에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펼쳐진 전변의 새 력사, 푸른 숲의 새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면면히 이어지게 되었다.
조국강산을 열렬히 사랑하신

우리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시며 후대들에게 수림이 우거지고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된 조국강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은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을 받들어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산림복구 사업을 원수님께서선도하시고 전체 인민을 산림조성과 보호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호소하시었다.
은 나라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틀을 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봄철과 가을철나무심기를 비롯하여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애국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나라의 산림자원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애국애족의 열정을 접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있다.
무릇 부모가 먼길을 떠날 때 무사히 다녀오기를 바라는것은 자식들의 마음이다.
하물며 온 나라 인민이 받들고 따르는 자제로운 아버지, 위대한 령도자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데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의 마음이 어찌 불같이 타오르지 않았겠는가.
경에하는 원수님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온갖 사랑과 민심을 베풀어주시는

변함없는 인민의 깨끗한 마음
인민의 자제로운 아버지이다.
인제인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세상에 대고 우리 인민이 제일 위대한 인민이라는것을 자랑하고싶다고 하시면서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불라는 강도 서슴없이 견드고 힘한 가치로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인민의 수호자,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시었다.
자신께서는 력사의 생

호지명주석의 랑복
주재 53(1964)년 11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호지명주석의 거든되는 요청에 의하여 월남을 방문하시 때였다.
비행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정중히 영접한 호지명주석은 그에게 자기는 지금 아이들 공부시키는 문제로 제일 큰 걱정거리라고 하면서 이번에 김일성동지에게서 그에 대하여 배우려고 한다고 말씀드리었다.
공화국에서 실시하고있는 무료교육에 대한 호지명주석의 이러한 부러움과 관심은 위대한 수령님과 회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회담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호지명주석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
호지명: 《나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김일성동지도 아이들을 몹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선 제가 김일성동지보다 더 열렬할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그야 물론입니다. 여기서는 온 나라 어린이들이 호지명주석을 호환이하지, 호환이하지 하면서 따르는데 그것이 우연하지 않습니다.》
호지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일성동지, 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아이들한테서 돈을 받으며 공부부 시킵니다. 이게 어디 호환아버지체면이 셤습니까.》
위대한 수령님: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리해합니다.》
호지명: 《아닙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이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하고계시는데 나는 아무리 예를 해도 그렇게 할수 없으니 야단이 아닙니까. 누가 무료교육을 하라고 자금을 줍니까? 김일성동지는 그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고있습니까?》
본사기자 김철진



거칠줄 모르는 그리움의 불빛
스치는 바람에도 내 진정 담아보내
바람결이 그이곁에 잠시라도 닿을것 같아
실어가다오 그리움의 이 마음
실어가다오 원수님 그곁에 사랑의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달려가는 마음아
...
순간 가슴이 몽클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의 외국방문소식에 접한 소박한 동심이 실리고 있더라도 거기서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었다는 소식을 경동속에서 받아안고 실천적인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기 위해 현지로 떠나는 과학자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을 출발하

우를수록 그 어떤 지리적공간을 초월하여 더욱 강력해지고 깊어지고 더욱 진하게 끓어오르는 혼연일체의 화폭, 이것이 바로 공화국의 참모습이 아닌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돌아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후대교육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리창시교원의 마음뿐이랴. 밤길도록 꺼질 줄 모르는것이 어찌 그의 집창가의 불빛만이라고 하랴.
그것은 그대로 경에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정은 그리움 안고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혁신하고 비약하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타반지는 충정의 불길이다.
우리는 려명거리의 불밝은 창가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은 나라 가정들과 일터들에서 밤길도록 그리움의 불빛, 창조와 애국의 불빛이 꺼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

시였다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막장을 나시던 걸음을 되돌려 다시 착암기를 잡았다
동을 걸고 혁신하고있는 방직공들...
민길 떠난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의 마음인양 공화국인민들은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걸음걸음 따라시며 창조와 위훈의 날과 날을 보내고 있는것이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함께 있을 때는 물론 멀리 떨어져있

은 행성이 지켜본 길
세인의 눈길이 따라선 길이였다
머나먼 외국방문 대장정우에
우리 원수님
위대한 헌신의 낮과 밤이 흘렀다
역사의 중화 짙어지던 멀고먼 려정
막중한 사명 가슴에 품어 지니시고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대륙을 꿰찼으며 열어놓으신 길
그이 자욱자욱은 또다시 세기의 사변을
새겼다
무슨 말로 감사드리랴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 울려 퍼질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위하여
민족의 더 좋은 래일을 위하여
평화변영의 길 더 넓게 펼쳐주시
오, 우리 원수님의 그 은공에

그이의 대장정은
세계를 격동으로 뚫어 한 기적의 장정이
이 지구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위인의 사랑이 누리를 덮고
정의의 뜻으로 열어가신
누구도 대신 못할 희세의 대장정
바로 우리 원수님뿐이시다
조국을 위해 겨레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세상 한끝이라도 가실분
수억만리라도 가까이 가실분
위대한 려정의 자욱은 끝이 없거니
오, 목매어 더듬으며 따라서는
원수님 헌신의 장정이여
끝없는 로고의 자욱자욱이여
그이의 대장정은
역사에 길이 빛나 전하리라



A decorative box containing the poem '애국헌신의 대장정 길이 빛나리' (The Great March of Patriotic Dedication Lights the Way). The title is in large, bold characters. The poem is written in vertical columns, alternating between the author's name '김태룡' (Kim Taeryong) and the verses. The text is enclosed in a dotted border.